

습기로운 사람 금하지 않고, 차근차근 꾸준히 정진을 하여 금을 다루는 금장이처럼 마음의 때를 점점 벗긴다.
(法句經·진구품 265절)

東大新聞

발행인 신준박, 편집인 신준박, 발행처 동국대학교,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67-8577, 팩스 (02)279-1270, 경복궁주식석당동 707, 전화 (041)41-4132, 인쇄인 김영로

제 1064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종우편물(가)인정사,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 11월 28일 (수요일) 【 1 】

통일조국 북소리 울려라 해방 동약이여!

총학 정·부회장 정우식·신원섭 1천3백69표차, 경주 오규석·정동일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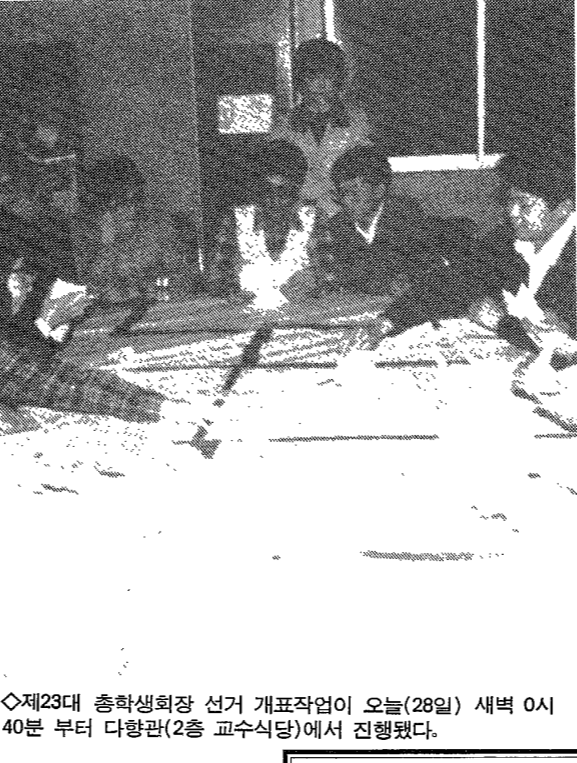


제23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통일' 단결의 정기로 분단과 분열을 갈라내고, 전 대학의 선봉 학자부의 모범으로 우뚝 서 통일조국 건국의 북소리를 울려라 해방 동약이여!를 구호로 내건 정우식(총학)·신원섭(부총학)이 1천3백69표차로 당선됐다. 또한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오규석(총학)·정동일(부총학)이 당선됐다.

제23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통일' 단결의 정기로 분단과 분열을 갈라내고, 전 대학의 선봉 학자부의 모범으로 우뚝 서 통일조국 건국의 북소리를 울려라 해방 동약이여!를 구호로 내건 정우식(총학)·신원섭(부총학)이 1천3백69표차로 당선됐다. 또한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오규석(총학)·정동일(부총학)이 당선됐다.

최종 개표가 끝난 후 당선이 확정된 기호2번 정·신조는 이날 오전 5시경 학생 40여명과 함께 동우탑에 참배했다. 또한 제7대 총학생회장에 '함께하는 새길로'를 슬로건으로 단독입후보한 최윤희(인철3) 양이 9백81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선거는 총유권자 2천3백42명중 1천3백36명(57%)이 투표에 참가, 찬성 9백81표(73.4%), 반대 3백61표(22.9%)로 지난 3월 85%에 비해 다소 저지율이 떨어졌다.

19일 동국인의 밤 '제19회 동국인의 밤'행사가 오는 12월19일 오후 6시30분 호명소시텔 엠베서더(2층 그랜드볼룸)에서 鄭在哲(경지 52주) 총동맹회장을 비롯한 각계 동문들이 참석하듯 열렸다. 이날 식순은 총장축사, 본교를 빛낸 동문들에게 축하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회비는 2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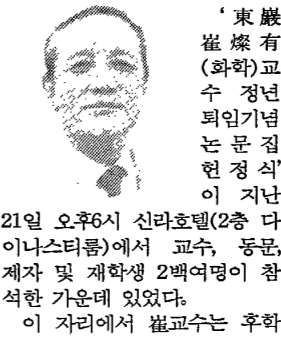
제23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작업이 오늘(28일) 새벽 0시 40분 부터 다량관(2층 교수식당)에서 진행됐다.

감사내용 보도로 '필화' 본지 수거-선거 중단등 과문

총학생회 1/4분기 예산집행과 관련한 기사 실린 본지 1063호(11월21일자)신문을 강제수거한 사건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에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선위는 투표를 중지시켰으며, 이 다음날인 22일 오후5시부터는 중앙당에서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학생회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부재가 지적됐으며, 본지와의 수거에 대해 총학은 위대포로 나온 이승욱(약40) 사법대 학생회장은 공개서와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편 총학생회가 임의적으로 수거한 뒤 되돌려준 본지는 1만5천부중 7천여부가 없어진 상태였다. 본지가 수거당한 것은 지난

86년 '파소악법철폐' 기사와 관련, 안기부에서 강제수거 소자 시진바 있으며 특히 압수 주체가 총학생회였다던 점에서 이 문제의 과문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崔燦有 교수 2백만원기탁 화학과 후학 양성위해



21일 오후6시 신라호텔(2층 다이나스터룸)에서 교수, 동문, 제자 및 재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교수는 후학 양성을 위한 화학과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2백만원을 회사했다. 이날 헌정식은 성용길(화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어 최교수의 약력보고 및 가족소개, 논문헌정, 李燦有(국어국문학) 교수의 축사순으로 이어졌다.

▲李燦有(농업생물학) = 다음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13차 인도식물학회 및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차 인도에 체류예정
▲朴仁國(농업생물학) = 연인도 1일부터 2일까지 유전공학 공동연구자 미국에 체류예정
▲南直祐(토목공학) =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제7차 국제수리학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과회의 참석차 중국에 체류
▲金昌洙(역사 교육학) =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구주사학회 참가차 일본에 체류
▲曺根錫(경주 지역어문학) =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호 일본학 연구재단 이사회 참석차 일본에 체류

천식 완치법 발표

任宰訓 교수 임상실험 통해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알려진 천식 완치법을 완성하는 방법 이 분과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任宰訓(한의학)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됐다. 85%의 완치율을 보여준 이번 처방은 지난23일 '마황 윤패산의 임상적 효과'라는 논문 발표에서 공개된것으로 기관지 천식치료에 마황이 함유된 한

약제를 혼합하여 60여명의 환자에게 투여, 51명 이상의 임상적 개선효과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이에대해 任교수는 "지금까지 천식 치료에는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마황윤패산의 치료는 천식의 근본원인을 제거·치료하기 때문에 완치된다"고 밝혔다.

'91학년도 신입생 경쟁률 4.96대1 27일 원서마감 연영과 최고...내달 18일 시험

지난 27일 마감된 본교 91학년도 신입생모집 입학원서 접수결과, 총모집인원 2천9백18명에 1만4천4백66명이 지원해 4.9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교무처가 발표한 입학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인문계가 1천8백60명 모집에 9천4백93명이 지원해 5.1대1 ▲자연계가 9백38명 모집에 3천3백69명이 지원해 3.6대1 ▲예·체능계가 1백20명 모집에 1천6백4명이 지원해 1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캠퍼스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캠퍼스의 평균경쟁률은 4.12대1로 나타났고, 연극영화과

가 29.3대1로 최고경쟁률을, 통계학과가 1.4대1로 최저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주캠퍼스는 5.98대1의 평균경쟁률에 조경학과가 14.3대1로 최고경쟁률을, 의예과가 2.2대1로 최저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91학년도에 부활된 영어영문과(야)는 8.4대1, 경주캠퍼스에 신설된 생화학과는 4.9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외국인지원자는 총23명(경주 16명)이고, 체육특기자는 총44명(경주 4명)이다. 본교의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이것은 서울소재 대학의 일반적 영향이다. 대입학력고사는 다음달 18일에 치러진다. 지역별로는 경주시·군이 9천5백68명으로 전체의 67.7%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포항·영일순으로 나타났는데 교직원 이용율은 지난해 4%보다 낮은 3%정도에 그쳤다.

경주캠퍼스 한방병원(병원장=安昌範·한의학) 진료환자수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만 8천8백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7백87명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측이 발표한 환자수집계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4천5백67명, 외래환자 1만4천2백56명으로 월평균 2천3백53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56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주시·군이 9천5백68명으로 전체의 67.7%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포항·영일순으로 나타났는데 교직원 이용율은 지난해 4%보다 낮은 3%정도에 그쳤다.

보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타성에 빠지고 정제하기 쉬운 시간이 방학의 계절일 것이다. 계절은 학문을 연마하여 그 학문을 통해 실제로 실천 행동을 획득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성찰하면서 내일의 길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방학은 정지와 휴식이 아니라 바른 역사를 이끌어 내는 힘의 원천, 그 노동의 연장이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정의를 생각내내는 시간의 장으로써 끊임 없는 정진의 방학이 되어야 하는데

근본을 삼는다. 그러기에 온갖 착한 법(정의로운 길)에 있어 불방일이 최대가 되고 최상이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또 가사를 하기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을 때, 태양은 하늘에 떠올라 일체의 어둠(불의의 역사)을 쫓아 버리고, 눈부시게 세상에 빛을 던지지 않느냐. 그러기에 가을 하늘에 있어 태양은 가장

게서 정의로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이 되는 길이 끊임 없는 정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헛된 일상속에 자기를 잃고 무가치한 유혹에 자제함이 없이 온갖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 거리는 것이 방일(放逸)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진리를 위해 자제와 참된 집중과 바른 노력의 지식이 불방일이며 더욱 깊게는 이 시대의 온갖 어둠과 혼돈을 쫓아내려는 근생의지, 다시말해 고난받는 민중의 삶과 하나가 되기 위한 고된 정진이 불방일의 참된 의미이다. 이번 방학은 저 점은 무질서와 탄압과 민중의 불의를 일삼는 무리들을 가늘땨의 태양이 희색의 구름떼들을 다같이 버리듯 불방일의 의미를 최상의 길로 삼고 그런 길들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자. 然然

'불교대학원' 신설에 즈음하여

귀의삼보하옵고, 동국대학교는 구한말(1906년) 한국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세운 민족의 사학이며 불교교육의 요람입니다. 따라서 본교의 교육이념은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자아완성과 불교정도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염원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학이념아래 개교 84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본교에서는 비록 만사지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급반 본교 교육목표와 이념에 가일중 부합하는 '불교대학원'의 신설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인간성의 기계화 및 물질화와 종교적 도덕적 소양이 고갈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불교교육을 통한 인간화, 민주화, 종교화를 목적으로 본대학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인간의 구원과 사회교화를 위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불교인구가 2,000만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교육의 현대화,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과 교단이 연계하여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문화 시켜 조직 및 포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교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전국 사찰의 증건승려와 1만여제가 전법사를 교리적 신앙적으로 체계있게 교육하여 한국불교의 현대화, 학문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세계화 하는 데도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므로 석사과정은 물론 연구과정 까지도 포함한 불교전문대학원의 신설은 본교는 물론 교계의 자랑이요 거국적인 경사라 하겠습니다. 강조제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오며 우선 인사에 가름 합니다.

△ 설치학과 및 승인 인원

과 정	설 치 학 과	인 원
석 사 과 정	불 교 학 과	30명
	불 교 사 학 과	30명
	불 교 사 회 학 과	30명
계		90명
연구 과정 관리자과정	각 과정 ○○명	

△ 개 원 예 정 일 : 1991. 3. 2
△ 수 업 형 태 : 전문대학원에 준함.
△ 입 학 요 강 발 표 : 추후 각 일간신문 및 불교관계 지상에 발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 및 재단 사무처장실에 문의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 (02)267-8131~9, (02)267-8141~5
재단사무처장실 : 267-8567, (외)267-8131, (교한)2002
재단 사무 처 : 279-4407, (외)267-8131, (교한)2003~4
●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 (0561)2-0131~6, (0561)43-1011~20

1990년 11월 일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長 吳 綠 園
東國大學校 總長 政治學博士 申 國 柱

어른에게

사설

23대 총학... 신뢰회복 부터 풀자
단결투쟁 구실될 수 있는 사업 필요

지난 22일 중앙당에서 열린 '공정화'는 민주적인 학생회를 염원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1만여 학생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일이었다. 앞서 철저리하고 있었으나 믿었던 총학생회의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실무능력의 미흡'은 많은 학생들에게 문제점을 던져준 것이었고, 자기 총학생회의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 벌어진 여러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학생들의 신뢰회복으로 연결되느냐 앞으로 학생회의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이 학생회를 불신 의 높이만 따지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23대 총학은 자신들이 있었고 이와관련해 총학이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우리신문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후의 과정이 수습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총학예산집행의 허술한 구조와 비공개적 집행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화과정에서 감사특위장도 밝혔지만 예산은 사업과 떨어질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도 예산을 총학이 유용했거나 착복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비효율성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문제는 단순히 예산집행의 비효율성문제라기보다 사업의 비대응성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불신과 불신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이 어쩔 수 없이 일반 학생들은 이번이 많은 불신을 느끼고 있다. 이것보단 예산문제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요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회관부들의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은 학생회조직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를 이끌고 가는 잘못된 풍성의 간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학생회로써의 불신은 대중적으로 들어가 대중의 힘을 폭발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 당선된 23대총학생회 정부회장이 지어야 할 점은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파

간의 갈등·분열을 비롯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생회의 강화등 '자주적 학생회'로 대표되는 여러사업들이 그것이다.

그러면, 23대 총학생회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될 23대 총학이 대중에 근거한 사업, 대중의 요구에 근거한 예산집행·효율적 관리, 정파간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운동의 대중화와 전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운동의 대중화 전문화는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그속에서 학생대중 자신의 삶 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우선 23대 총학은 자신들이 주장한대로 과단위학생회조직을 위한 실정 파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러 투쟁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질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은 대중의 많은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파간의 분열양상해소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서로 손을 내밀고 사실에 입각한 대중적 단결의 기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파와 정파간의 나뉠거리기 단결이 아닌 대중에 근거하고 대중을 주안으로 놓는 대중적 단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결의 중요성은 새롭게 지적할 필요도 없는 근원적인 문제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 없기에 그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단결없이 승리없다'는 교훈은 87년 노동자대투쟁과 항일혁명투쟁의 과정에서 밝혀진 진리이다.

더이상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떨어 지길 바라는 듯한 행동은 하지 말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많은 공통점속에 단결하며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에게 점증받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절구에 빠진 학원자주투쟁을 새롭게 일으킬 것을 당부한다.

88년도에 제1회 8개항의 혁신적인 구조는 그동안 무관심과 반학자투쟁력의 음모속에 하나 들쭉 와해되어 가고 있다. 와해되어가는 학자투쟁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오직하나, 대중투쟁뿐이다. 이제 모든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투쟁으로의 복원은 대중적으로 들어가 대중의 힘을 폭발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91년은 학자투쟁의 승리, 학생회승리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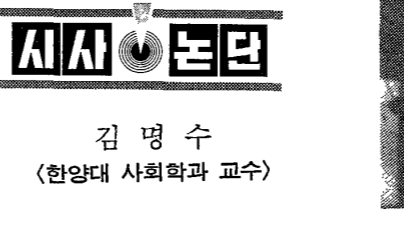
필자는 한가지 일에 몰두하던 다른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불완전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번 논문작성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신문, 잡지 및 텔레비전과 담을 쌓고 지낸다. 그러다가 작업이 끝나면 쌓아둔 한때는 '신문'이었던 종이더미에 서 손에 잡히는 대로 끄집어내 낱사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읽으면서 낱 정보를 수집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시립처럼 시공이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사건과 사건들을 헤비하고 돌아 다닌다.

다섯 사회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무슨 손오공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버릇은 해독은 것이어서 이제 새삼 바꾸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여러 두루나 운이 좋으면 예기치 않았던 즐거움과 유용함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행과 견문만 하라. 때로는 엄밀하고 다분히 정형화된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에 스스로 갇혀서 미처 볼 수 없었던, 보려하지 않았던, 또 파편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현상

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던지는 정보와 사건의 홍수 속에서 같이 울고, 웃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는 현상들은 아무래도 회생될 수 밖에 없는데 요즘처럼 한나라의 국민들이 또 한사회의 시민의기를 뒤흔들기 힘든 시점에는 일부러라도 '뉴스-바탕스'를 떠나보라고 권장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옛날 뉴스-바탕스에서 돌아와 목은 '신문'더미를 뒤적거리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뒤적뒤적

뒤적뒤적 열거하던 대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안면도 핵폐기를 위장사건, 일가족 생매장 사건, 민주당내 각 서파들과 이진투구사건, 민방위법 폐지, 잡지 및 텔레비전과 담을 쌓고 지낸다. 그러다가 작업이 끝나면 쌓아둔 한때는 '신문'이었던 종이더미에 서 손에 잡히는 대로 끄집어내 낱사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읽으면서 낱 정보를 수집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시립처럼 시공이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사건과 사건들을 헤비하고 돌아 다닌다.



김명수 (현양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사회에 팽배한 요행심리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단지 포장된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감자줄기에 감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듯이 같은 끈에 붙어있어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가족을 생매장함으로써 강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영구히 막을 수 있으리라고 요행수를 기대했던 범인들과, 핵 폐기를 처리시설을 건설하려고 의도하면서 연구소로 위장해서 주연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과거치나 중

청남도 당국의 요행심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3당통합의 영단을 내렸다는 강변을 국민들이 액연그대로 믿어줄 것으로 기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요행심리나 무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목적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이란 이에 고려에도 없는 후안무치함과 국민을 바지저고리처럼 여기는 무례함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천금보다 소중한 여겨야 할 사람의 목숨까지

계교육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길고도 지루한 작업은 대인원서 접수장구에서 순간적인 눈치잡기로 끝나버린다.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 무슨 대학 무슨 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행'입학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에 가서 비로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필생의 프로젝트를 하고는 그 결론이 몹시 막막한 것이다. 이런 엄청나게 비싼 댓가를 치르면서 본말이 뒤바뀐 작업에 너도 나도 몰두해 있는 것이다. 주체문제

는 어떤가? 맞은 안으로 안이고 계속 하면 짐을 장만할 수 있으리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명되지 이미 오래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장만을 위해,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늘리거나 전체차량을 갖기 위해 온갖 축약을 쓴다. 이런 요행을 바라야만 한다. 이런 구조안에서는 나나 할것없이 모두 눈치빠른 투기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보던 우리의 이상은 사생심을 조장하는 불발이 전도된 구조에 연대하여 저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바탕스 여행을 자주 떠나는 사람이 흥미롭게 여기는 뉴스기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컨대, 정치지도자들이 3당통합을 했던 것이 진실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한 나머지 내렸던 '영단'임이 판명되었다거나 과거가 안면도에 핵폐기를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거나 하는 참신하고 진취적 새로운 소식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뉴스-바탕스에서 돌아와 얻은 정보보여 이면 '뉴스'들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성같은 세계적 연구소와의 경쟁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일부에 불과한 것은 오픈게임이 아닌 가. 비단 이것이 어찌 한의학 연구소에만 해당하리요. 많은 가까운 예로 현대인들이 심나 라만 하더라도 연구소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데 국가 다음의 계산을 보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이다. 특히 그중의 스물두번째로서 급지수가 열세자에 유일한 단과대학의 부설기관인 한의과대학 부설 한의학 연구소는 학교에 다니면서조차 이렇듯 들기 어려울 유망무실한 느낌마저 든다. 연구소의 국제경쟁시대에 하나의 단과대학 부설기관으로 가까이

는 국내연구소와 말하는 기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열린글터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머칠것 교문을 나서던 나를 무작정 붙잡고 얘기를 하던 후배의 모습이 떠오른다. 뭔가 절박하고 급박 음모라든가 터뜨릴 듯한 후배의 모습을 바라 보던 참으로 착잡함을 말할 수 없었다. 머칠간의 대자보를 휘산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논쟁(논쟁이란 말이 뜨거워 지지 않는 학우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등이리 회장을 맡고 있던 2학년 그 후배는 도대체 운동이란게 뭐냐 하는 거 누가 힘든 회의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수 있었

오로지 선배가 던져주는 문 제, 책 속의 공허한 당위적인 단결의 외침은 이제 그만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투쟁이나 작 작은 실천의 방도들을 우리모 두가, 1학년·2학년이 앞장서서 모색하자 이말이든 어떤 하 나의 입장이든 치부한다면 역시 할말이 없다. 자신들만이 당파적이고 혁명적이라는 아집을 버려라, 그 특성과 각각의 허깨비를 벗어안라 한다. 더 이상 학우들에게 선언하고 강요 하지 말라.

88년6월4일, 통일단결을 호 소하며 분신으로 산화했던 숭 신대 배대전 열사의 최절찬의 침을 삼키자.

우리의투쟁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순수함 그 자체여야 한다. 모든 정파에게 호소한다. 자신의 권위와 아집을 내리고 실제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피눈물도, 마지막까지 호소한다.

87동지 (법과대 법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선 당촌 (한의대 한의학과)

東國漫評

임치성

동계 외국어 특강안내

강좌	강사	시간	강의실
ACADEMY TOEFL	주용현 (전 외대강사)	09:20-10:40	동국관 L301
VOCABULARY & 영어순해	윤희수 (전 외대강사)	09:20-10:40	동국관 L501
이재욱 TOEFL	홍정덕 (전 서강대강사)	11:00-12:20	동국관 L301
박성원 일문일어	안원실 (전 한대강사)	11:00-12:20	동국관 L501
CAMPUS중합영어	한홍주 (전 단대강사)	13:00-14:20	동국관 L301

강의시간: 1990. 12. 26 ~ 1991. 2. 22 (월~금)
인원: 강좌당 300명
수강료: ₩8,000
접수기간: 1990. 12. 1 ~ 선착순 마감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사무실, 구내서점

동계 외국어 회화 특강안내

강좌	강사	시간	강의실
영어회화(초급)	Patricia A. Pierce	09:30-10:45	동국관 L304
영어회화(중급)	Patricia A. Pierce	11:00-12:15	동국관 L304

강의기간: 1990. 12. 26 ~ 1991. 2. 22 (월~금)
인원: 강좌당 25명
수강료: ₩60,000 (8주)
접수기간: 1990. 12. 1 ~ 선착순 마감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사무실
* 학기중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임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동학! 광장

모임이다

■재동대 재주학우회에서는 1년을 마감하는 이시기에 서로 어울려 향수를 풍고 4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을 같이 축하드리기로 했습니다. 11월30일 6시에 쌍용스카이라운지에서 우리 만나뵙주.

■다사다난했던 경이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동기 동창들의 소식을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 그 쌓여진 정을 풀고자 합니다. -연제: 1990년 12월15일(土) 오후4시~9시 -이디서: 동국대학교 혜화문 근처 신라호텔2층 P.S: 이광호, 이종복, 남기서, 이호준, 김준식, 김동식, 배찬신, 정태순, 이희용, 조일권, 박근원, 장한석 형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재 동대 한성고 동문회

■90년 11월30일·다함원앞 졸업생 환영회 빙자에서 일괄한번 불러고 -대구연합동문회장

■선우부가 났다

1. 안건: 카니발
2. 일시: 1990.12.1 오후6시
3. 장소: 아스트리아호텔 2층
4. 회비: 현역 2만원 예비역 3만원
5. 준비물: 파르너

-선우장

■자디칸 강방안에서 열고 있는 사랑하는 학우들을 위해 우리의 뜨거운 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호: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일시: 만미구국학창 46년 12월 4일(10시~7시)

-장소: 다함원 2층

-일문과·무역학과·구속자 어머니회

모임입니다

■동국 탐험대 신입부원 모집

저희 동국탐험대(동굴탐험연구회, 수중탐험 연구회, 산악회)는 미지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다가오는 동계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도서편찬을 지바 보급자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문의하세요.

■보러오세요

■보러오세요

현실과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 자기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을 자기와 함으로써 세계와 자기를 동시에 변혁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하다. 이를 예술속에 체현하는것이 '예술가'라는 이 는 책속의 한구절을 되짚으며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혼자만의 독백에 불과한 전시회가 될지라도 이 차갑고 냉정한 겨울이라는 현실 속에서 '90세대학 미술전시회를 참가하시어 애정어린 눈빛으로 감싸주시고 애정어린 절제를 부탁드립니다.

-매: 1990년 11월26일~30일까지

*곳: 서리별문화회관 전시실 *여는: 민중미술학과 *미술학과 학회장 박지영

■To. 선호

지난번 겨울했던 나의 신겨울 미안하다. 정말... 집에서 생각해보니 창피하기만 하더라. 너와 난 영원한 원수인가 -현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머투야 생일(12월14일)축하해.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면 꾸짖는 너의 모습 속에서 대라는 '사랑'을 배웠어. 그래 너의 탄생은 축복이야. -머투가 사랑하는 다래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세요

후우회 차기 명주영(회계1) 회장님과 이수미(지교1)부회장님 축하합니다.

다가오는 91년도를 구어온 91학번과 한번 열심히 해보자구요. -수진

■영문과 영어연극반 신입 반장 박경의, 부반장 김현태, 총무 장미숙, 서기 김미현의 선출을 축하드리며 더욱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시들어가는 89선배들이

학내기회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건강한 학생회를 만듭니다

학생회 강화는 참여공간 확대에서 시작

민주적인 의사수렴구조 모색

90학년도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가 낮고,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학생회 내부의 음모적 사업작동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민주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통일 집결된 의견과 실천을 내오는 학문·생활의 공동체인 것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지 않음에 내용없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소수 선진 간부들의 독재·독선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학생회가 학문과 생활의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

확하게 수렴, 그에 기초하여 학년사업, 전체사업을 학습들과 만들어 내려는 창조적 열정이 있을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과 학생회에서는 학년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는 학년 대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모인인 과 운영위 속에서 과 학생회의 모든 사업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 학생회에 존재하는 전공학회, 소위원회, 예비역·복학생 협의 등의 대표가 과 학생회의 운영 위원회에 참가하여 그 모임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과 학생회에 반영 관철시켜야 한다.

현재의 총학운영위원회가 각 단대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의견단위로써 가능하리는데



보론(10)

재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학생대표자회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생회에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1만 학우가 각자 1인 1

학생대표자회의 정착 요청

과 단위 이해와 요구를 단대에서 집중시켜 총 운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의견단위를 확대하여 과 학생회장까지 참여하는 의견구조를 정착시켜 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고 민주주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전체 요구안이 검토되고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요구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로서 총학생회 산하 선진부와 학교의 각 언론사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작업을 벌임으로써 1만 학습들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부는 동약의

교정, 과학생회실,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학습들과 함께 하고 학생들의 변화되는 이해와 요구를 그때 그때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

교정, 과학생회실,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학습들과 함께 하고 학생들의 변화되는 이해와 요구를 그때 그때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

전공학회 건설 방도

85년 총학생회의 부활이후 계속적으로 과 학생회사업에 이전보다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장 작은 단위로서 과 학생회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다수의 학우들은 학생회로 결집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우들이 학생회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학회를 꼽을 수 있었다.

내가 탐독하고 있는 역사교육과를 예로 들면 전공학회로서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고대 미술사와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일고자 고민하는 '바른사학 연구

회'들이 있고 이밖에도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교육학회가 있다. 이러한 공식 학회에도 작은 모임들이 생겼다. 없어도 되고 생기곤 한다.

90년 1년을 회고할 때 우리 과 학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이후 올바른 학회 건설을 위해 몇마디 하고자 한다. 학우들은 다른 어떠한 학생회 내 모임보다 전공학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학문영역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진공분야를 더욱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우들의 일반적 요구인 학문

관성적인 사업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지난 동대신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우들은 90학년도 학생회의 간부의 품성문제중 가장 절실한 문제로 관성적 사업작풍(41%)을 지적했다. 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는 늘 지적돼 왔던 문제이나 쉽게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학우들의 학생회 또는 학생회간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학생회 간부(총선위, 선거운영위)들의 선거에 임하는 관성적인 작풍의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대중에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그리고 학우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선거를 위해 선거에 임하기 전에, 선거전반에 대한 학우들

의 불만을 알아보고, 모범적인 선거운을 치르기 위해 대학교의 선례를 수습하거나 학우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으며, 선거 진행중에도 학우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도를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총선위에서는 양측선대본 사이에 끼어 중재의 역할을 하였고, 또한 투표의 관리의에는 선거관리를 올바르게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투표연기에 대한 총선위의 입장이나 변경된 일정에 대한 공고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생회건설에 있어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막중지대함을 인식한 선관위에서는 학우들과 함께 하는 선거를 위해

자발적의지 모아내는 위상 필요

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오는 지도의 관점 부재와 더불어 의 지역의 약화는 학회에 들어오는 학회원들의 이탈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회는 학우들의 자발적의지에 기인하여 시작되어야 한다는 모인들과 의 의도에 취미모임, 문화모임 등의 학생회에서 불심양명으로 힘을 써 주어야

관성적인 사업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또한 양 선거운동본부에서도 관성적인 태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정책·공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매우 인색해 보였으며, 선거운동과정을 보

찾아다니며 실천하는 간부돼야

한 문제이다. 모든 사업을 준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올바른 지도원칙을 통일시켜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부는 발로 뛰어야 한다. 학우들에게 자기의 지도내용을 실천선동하기 위해서보다 먼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발로 뛰어야 할 것이다.

관성을 깨고 한다는 것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창조적으로 사업에 임한다는 것이며, 이는 타성을 깨고 습관의 울가미를 벗어던진다는 것이다. 학우들의 관심과 불만, 이해와 요구를 먼저 듣고 그들의 가려진 곳 아픈 곳을 학습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통해

관성적인 사업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또한 양 선거운동본부에서도 관성적인 태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정책·공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매우 인색해 보였으며, 선거운동과정을 보

바로 이책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에르네스트 만델 지음

했지만 소련 관료계급의 두터운 벽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가히 필연적이라고 본다. 고르바초프개혁 내지 고르바초프주의가 고르바초프이전에 이미 출몰하고 있었다는 견해에서도 보이듯, 만델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련이 집어야 할 탈스탈린주의 동 내지 사회주의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 스탈린 극복을 통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회귀는 곧 사회주의의 진보와 연결된다. 이 점에서 만델은 초기 소련개혁주의자들(1986년 당시)과 견해를 같이한다. 무우 하나를 사기 위해 식품점 앞에서 한나절을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앞에 사회주의는 제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서 있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뿐이라고 만델은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만델은 곧 개혁과정으로 넘어간다. 그것은 곧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과 결부된다. 만델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의 지향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펼쳐버리지 않는다. 개혁의 역동적 과정 뒤에 숨겨진 또다른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르바초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서도 찾아진다. 고르바초프는 탈스탈린화를 기초로 개혁을 출발시켰지만 이내 인민의 개혁분출과 강고한 관료계급의 충돌에 직면한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아예로부터의 개혁의지와 위로부터의 개혁정책을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 혁명기념일의 만행부위회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권한의 강화정책을 통해

개혁속에 숨겨진 관료주의 지적 마스·레닌주의 기초 고르비 개혁 비판

우리 법인들이 보기에 사회주의는 분명 물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루진스키는 '우리가 바라던 사회주의는 우리의 손자 때에 가서는 분명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절망 아닌 절망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모든 일이 '스펙'하고 있어 버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미 역사는 우리가 잠시 추억을 되새기는 순간, 또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봄의 끝자락 부영과 민중의 분노는 또다른 역사에 대한 대답을 제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르네스트 만델이다. 그는 혁명기의 마지막 통찰력이라 말할 수 우리의 가슴에 또다른 불꽃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개혁의 출발점(원인), 개혁의 역동의 진행(모순) 그리고 개혁의 종착점에 대한 일관된 파악없이 우리의 것을 준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겠다.

만델은 현실사회주의 개혁의 원인으로 혁명이후 소련전연의 지태를 이루어온 두가지 전통에 주목한다. 하나는 마르크스-레닌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스탈린의 전통이다. 만델은 트로츠키주의자답게 스탈린을 레닌과 엄격히 구분한다. 레닌의 사회주의 건설의 유연성이 1936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전연과 광범위한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한 국유화, 소유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스탈린의 조지치 심각하게 해독되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련이 안고 있는 생산성 정체, 관료적 현실, 동구 국가들의 소련에의 구속 등은 바로 스탈린의 '왜곡'이 낳은 귀책이라는 것이다. 비록 스탈린의 틀속에서의 스탈린 비판을 통해 개혁을 이루려는 흐루시초프의 노력이 있기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경향을 이를 잘 보여준다. 만델은 바로 이점을 농축시켜 다듬고 같이 비판한다. 결국 고르바초프도 관료계급의 산물일 뿐이라고. 만델은 관료계급의 후예인 고르바초프의 관료적 개혁은 인민의 시위앞에서 관료적분출보다는 관료적 강화로 나아가길 것이며, 결국 개혁의 현안이 관료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뒤쫓아 만델은 개혁이 걸 어갈 시나리오를 그려서서 그 지향성을 조심스레 타진해 본다. 스탈린으로서의 회귀나 레닌의 부활이냐라는 문제는 인민의 사회주의나 관료계급의 사회주의의냐라는 보다 투철한 질문으로 구체화 된다.

이점에서 만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쓴다.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인민의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된 레닌의 글귀 속에 담겨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만델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기 보다는 고전의 진실(?) 속에서 소련의 지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자의라는 명에 아닌 때 문에 만델은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주의개혁에 관한 한, 만델의 식견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 만델의 견해는 '또 다른 하나의 전례로만 치부될 수 없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노동대중의 자기권리의 회복여부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의 기준점이다.'

차 혁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수료)

성명서

1990년 11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을 두고 우리나라 400만 장애인들은 분노의 가슴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압축받은 삶을 이어가던 중 장교법은 한숨과 빛과도 같은 부분이었다. 소수의 절거투쟁으로부터 대동진회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지난해 12월 드디어 장교법을 장애인중의 승리로 정복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노동자가 되어 역사의 주체로 그 임무를 책임지는데 보였다는 의지로 가득했고 바로 노동의 현안이 장애해방의 전진 기지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 반역적 자본의 발톱과 그와 결탁한 현 노동자 정권은 장교법을 무력화하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끝없는 삶이 되려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1백인 이상 사업장에 2%를,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백인 이상 사업장에 1%로 시행하자고 하며, 이에 덧붙여 적용 제의 업종을 명시하여 장애인들은 전자조립, 시계수리, 도장, 양재, 안마, 목공등 단순 노동집약 업종에만 일하게 하자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장교법의 시행에 반대하며, 혹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도 91년 장교법 시행 예산 120억원을 12억으로 삭감, 이미 내년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힘없는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억압의 형태는 두 집단의 반역적, 반민중적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얽매어 있어 할 수 없는 대립 구도가 장애인 운동에서도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장애해방과 이 땅이 민중이 주인된 참세상으로 변혁시키 고자하는 우리는 공동 투쟁체를 결성하고 소수 가진자의 폭력적 억압을 분쇄하고 대다수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올바른 정취를 정립한다.

우리의 투쟁은 장교법이 독재 권력의 정권 유지적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소수 반역적 자본가들이 인간을 자본 축적의 기계로 만드는 것에 전면적인 반대의 깃발을 올려 기어오르는 장애해방의 함성을 들끓처럼 번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장애 민중 앞장 정책 노동자 정권 바살내자!
...공중의 삶 강요하는 정권을 타도하자!
...강고한 민중연대 장애해방 정취하자!

1990. 11.18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
한국장애인 총연대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회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서울장애인 단체협의회 서울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 건국위 산업계해 노동자협의회 녹색마비전구회 한양대학교 키비단 서울대학교 손발사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 협회 서울지부 청각 장애인 청년회 청청회

아르바이트

보람 있는 일로 학비를 벌자!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분투하는 젊은 지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아르바이트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을 보람 있는 일로 학비도 벌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여가활동으로 능력이 따라 월 5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영출판사
277-1549, 267-1902, 274-7145
(동국대학교 후문 근처)

8만 동국인맥의 생생한 기록 동국인명록

8만 동국인의 성원을 한데 모은 '동국인명록 제6집'의 발간은 84년 동국사의 인맥을 세기는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현재 본회에서 배포중인 '동국인명록'은 1908년 명진학교에서부터 89년 졸업생까지 대학별, 졸업년도 별로 직장·직위·전화번호 등을 수록, 동문 상호간의 결속과 동국애를 다지는 가교로서 동문 결에 자 리할 것입니다.

—구입안내—

1. 대금: 권당 3만원(우송을 원할시에는 1,700원을 추가함)
2. 구입방법
 - 본회 사무국에서 직접 구입
 - 전국 은행 각지점 99년 창구에 대금 납입. 지로번호:7500891

* 지로를 보낼때 인명록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주시면 지로통지서 도착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2-18(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1, 3992, 3993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사회보도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건강한 학생회를 만듭니다

차별 아닌 전문성 차이 보장해야

집중분석 본교 사무직과 기능직원간의 차별실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 이러한 명제가 올바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열 만분의 일도 채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흔히 말하는 일반사무직과 기술직, 기능직으로 일컬어지는 직종간에 있어서의 임금과 대우의 문제이다.

본교만 하더라도 일반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노조에서는 오는 12월중에 있을 보충협약을 앞두고 기능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본교의 기능직을 보면 크게 일반사무직과 기술직, 그리고 기능직의 세부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사무직은 보통 학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직원들을 말하며 기술직에는 도서관사서, 전산원의 전산기사가 포함되고 기능직에는 기능기사로 일컬어지는 운전기사, 목공, 전기, 통신기사, 경비, 수위 그리고 본교 여직원 모두가 포함된다.

우선 기능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능직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본교 여직원들의 문제이다.

본교 여직원들은 현재 학내 각 부서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 교환원, 그리고 전산처리 임원직인 키보드, 보전소, 간호사, 영양사 등을 포함해 총 52명인데 이들은 모두 ‘조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직원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조부’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교환원이나 키보드는 순수기능직으로 기능직1, 2등급이 되어야하고 영양사, 간호사, 그리고 조부용 자격증을 소지한 도서관사서는 전문직적인 분명한데도 이들을 포함한 여직원들이 모두 기능직3등급의 ‘조부’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직원들을 학력이나 업무형태, 개인능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일반사무직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능직3등급이라는 여성별칭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기능직중 최하의 1호봉과 직무수당도 가장 낮은 7만 원이고 승진이 없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직 남직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5년간 근무 후 임금이 차이는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 엄청나게 되는 것이다.

“비단 임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조부’가 무슨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느냐는 것으로

업무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여성들이 ‘조부’일만 하는 건 아니죠. 특히 단과대 교학과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거의 모든일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노조여성부장 박현숙(불대 교학과)씨는 여직원들이 사실상 하는일과 ‘조부’로 규정지어놓은 것간에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본대 본교에서 여직원들을 기능직3등급 ‘조부’로 편제해 놓고 있는 타당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조여성부에서는 오는 12월에 있을 노조보충협약시 여직원들중 교환원, 키보드는 기능직1, 2등급으로, 영양사, 간호사, 도서관사서는 전문직으로 그의 여직원들은 일반사무직으로의 직제개편을 안전으로 상정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기능직3등급 여직원뿐 아닌 기능직1, 2등급에 있어서도 몇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능직1등급에는 운전기사와 목

공, 건축, 전기, 통신의 기능기사가 포함되는데 기능직1등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1등급이면서 기능기사와 운전기사간에 직무수당이 17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호봉에 있어서는 같지만 직무수당의 차이로 인해 같은 기능직1등급간에도 임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이 직무수당의 차이가 정확한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능직2등급인 경비와 수위 간에도 문제점이 있다. 본교경비원은 현재 16명이고 수위는 28명인데 학내 각진로와 정문, 중문, 후문 등에 수위를 배치하는데 있어 약간의 인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라는 수위인원을 야간경비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야간경비원이 모자라는 수위인원에 보충이 되고 수위와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을 주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인사당시 야간경비원이었는 때 현재의 수위인원을 보고있는 6~7명의 인원은 수위보다 2호봉 낮은 야간경비원임금을 그대로 받고있다. 그럼으로써 같은 수위인원을 보면서도 수위와 야간경비원들 사 이가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본교 기능직내의 직종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의 차이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본교목공소는 2명의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풍이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다.

예를들어 기능기사와 수위와 일반사무직원이 똑같이 1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초봉에 있어서 기능기사는 36만3천원, 수위는 30만 원원, 대졸사무직원(군대미필기준)은 43만7천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10년후라면 기능기사는 46만3천원원, 수위는 40만원을, 사무직원은 77만9천원의 임금을 받게

못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능직2등급인 근로직의 석유배달원들은 손이나 옷에 묻은 기름을 제거할만한 세탁실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로 11년째 목공소에서 일해 온 박정근씨는 “학교가 워낙 넓은 건물이 많아 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를 다할수가 없습니다. 무

엇보다도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일반 사무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기능직3등급의 여직원들의 문제점이거나 기능직1, 2등급의 임금, 작업환경의 문제점들은 일반사무직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타대학의 경우 본교처럼 여직원들을 기능직으로 분류해놓은 곳은 한대학도 없으며 연세대의 경우는 오히려 직원뿐 아닌 교수까지 ‘통합단일호봉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10년근무시 임금이 기능직의 경우 53만9천원, 사무직이 69만원정도로 그 차이가 본교처럼 크지않음을 볼 수 있다.

일반사무직과 기능직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책정기준이 다른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차별이 아닌 정확한 차이점의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근거없는 직제구조로 여성들을 저임금과 차별에 묶어두는 것이나 전문기술인을 기술인답게 대우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한 균형있는 진정한 사회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최유복 기자)

성북은앞에 U·R 협상

(4)본질과 대응방안

UR협상 타결이 임박해오면서 농업에 비대한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UR협상의 본질을 그 배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배경

주지하듯이, IMF, GATT체제를 구축한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REQUEST LIST(‘협상관심품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

분산시킨다는 명목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말의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UR의 타결은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외에도 미국산업의 국내 침투를 완전보장함으로써, 특혜정권으로는 정권의 안전을 마련할 수 있고, 국내독점자 본으로서도 UR를 통해 해외진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REQUEST LIST(‘협상관심품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

미국 경제위기 해소위한 ‘강요책’

국내독점자본, 해외진출 출구로 악용우려 외국금융기관의 심야업무 허용까지 압력

대 석유파동 이래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쌍무적 협상 및 자유무역지대 구상등을 통해 미국중심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보호와 성장을 위해 그들의 취약산업(철강, 섬유, 신발,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 대해서는 쌍무협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가 요구한 REQUEST LIST는 주로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선진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미, 칠안산업(미, 일, EC) 및 서비스산업 등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내 독점자본은 농산물의 개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첨단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어 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런 UR의 성격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부는 UR협상에 미국의 일방적 개방압력을 다자간 협상으로

심지어 국내의 과소비 추방운동마저도 정부에서 즉시 중단해주시도록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응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 대외의존적인 현정권 및 국내독점자본은 UR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면서 민중의 이해를 외면하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은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UR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립정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민주·통일을 기치로 한 끊임없는 대중투쟁을 촉발시켜야 할 것이다.

구 광수

(민중민주운동연 연구소 연구원)

동약로

“다항판 아래에 있는 총학 영수증자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경, 감사부에 있을 공청회준비를 위해 신문사에 모여있던 기자들에게 새 생년월일로 들어선 이노 학생이 던진 질문이었다.

“저는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총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관공도 없었어. 그런데 위에있는 영수증 사본들을 봤는데, 같은 필자들이 많이 있잖아. 또 동공문구에서 나온 영수증사본들은 제각기 필명이 달라요. 동공문구 주인이 대머릿머리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라며 자신을 회계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총학의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었다.

지난 21일자로 발행된 동대신

문의 총학예산집행부분 관련기사는 그 진위여부야 차치하고서라도 배포중인 신문의 압수, 총학·신문사의 수많은 대차보쌈, 그리고 제23대 총학생회의 연거푸 라는 일과판파의 파장을 물고갔다.

끝이 아닌 총학·감사에대한 공청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호·2번 선거운동원들과 일반학우들

의혹과 공개성

“90일 경고조치, 수백만원의 ‘방구’라는 소문은 결국 총학의 실무능력미흡과 예산의 비효율적집행으로 판명됐지만 그동안 학생회간부들사이에서 보인 불신과 반목은 결국 이를 바라보는 일반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던 것 같다. ‘학생회의 사업과 감사들이 철저히 공개되는 정보’가 조성되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청회자리를 떠나는 어느 학생은 씩씩한 표정을 지어주지 못했다.

(유기용 기자)

성명서

제23대 총학생회 선거기간인 지난 21일자로 발행된 동대신문 1063호는 결코 잊지 못할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학언론의 목숨인 ‘정론직필’은 왜곡과 편파로 불리워졌고, 독자대중을 외면한 정파의 기관지로 전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동대신문은 결단코 왜곡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정파의 기관지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시기에 ‘감사’가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동대신문은 총학생회에 의해 강제로 수거·보관되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있는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수거과정에서 이미 독자들은 알권리를 상실했고, 동대신문은 편집자율권

을 잃었습니다.

동대신문은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선전선동의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독자대중들의 비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당위를 갖지만 압력과 탄압은 절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동대신문은 주장합니다. 이번 신문 수거사태에 대해 독자대중들에게 책임성 있는 해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대신문이 진정한 대중지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사회기획

범민련 결성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

자유왕래·전면개방 통한 민중통일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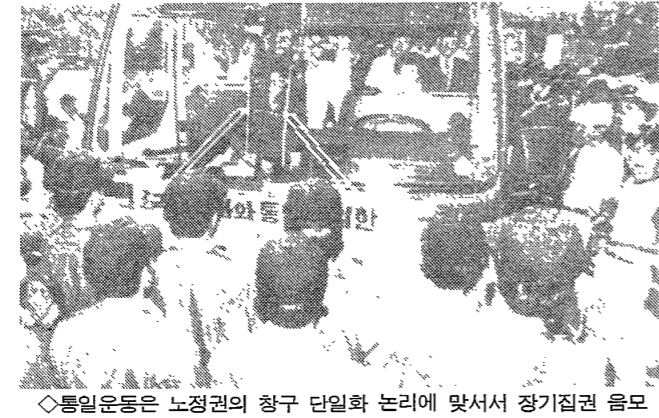
1. 베를린 회담의 결과

11월19일은 민중적 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김주성총장이 본인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3·8선을 넘어선 이래 분단의 50년을 앞두고 민간 차원으로는 최초로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범민족 통일운동의 결성 및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취지를 담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통일운동의 전개에 있어 주목받는 단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지난 범민족대회 기간 중 남측이 불참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북·해외동포의 참여로 열린 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8월18일 남측대회의 발표를 판문점대회의 발표를 수용했으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결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범민족대회 남측분부는 논란 끝에 10월24일 대표자회의에서 남·북·해외동포가 모두 동의하는 범민족 통일운동 결성 및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시일내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

의 대중화와 단결을 담보할 기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범민련은 "자유·평화·민중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과 범민족대회에서의 결의를 기본 강령"으로 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임을 천명했다. 공동선언은 1995년을 통일의 해로 이룩할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유엔의 철수, 핵무기의 철거, 군비·무력의 상호 감축,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가보안법의 철폐, 물리적 장벽의 철거

을 광적연대민을 선언하며 ▲장기수 대책 특별위원회와 식민지 피해자 공동조사단을 범민련기구 내에 두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농민, 여성, 언론, 작가, 학생, 문예 등의 각 분야별 연대모임을 추진하며 ▲이산가족 찾기 사업은 해외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남과 북측 본부가 집수를 맡으며 ▲강령과 규약은 초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 본부에 연락하여 통과하기로 했다. 초안 책임자는 이해락, 황석영, 전금림 3인으로 확정했다. ▲여성의 범민련 참여를 명문화

이 펼쳐질 것인데 이러한 사업에 민족민주운동의 동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번 실무회담의 준비 자체를 현시기 투쟁방향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던 것과는 일치한다. 현재 노정권이 피하는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는 상황은 72년 유신독재가 등장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차관경제에 대한 독점의 행태에서 직접 간접 부자에 의한 독점의 축적 체계로 변화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면서 등장한 유신독재, 축적체제 변화에 따른 민중생존권의 약화와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면서 체제 위기의 탈출로 이용하였다. 통일을 대비한 헌법이라는 유신헌법은 박정권의 음모를 집대성한 것이었다.



◀통일운동은 노정권의 장기집권 음모 분쇄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지금 역시 노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와 완전개방 경제를 앞둔 축적체제의 변화를 피하는 과정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 민중생활의 파탄과 민중의 투쟁이다. 노정권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기초로 독점의 안정된 축적체제를 확보하는 것인데 국제경제의 위기는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생존권 이하의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

제2차 범민족대회 개최, 분야별 연대모임 등에 합의 장기집권음모분쇄와 통일운동 병행돼야

의, 이를 위하여 11월12일 대표자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엔본부의 기구로 판문점 회의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용승 공동본부장과 이해락 집행위원장 그리고 조조성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파견, 베를린 회담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를 통한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절박함과 아울러 유엔본부기반과 불가침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베를린 3차 실무회담은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3. 범민련 결성과 앞으로의 통일운동

베를린 회담으로 결성된 범민련은 예정대로라면 91년 1월 중으로 남측본부만 만들어지게 된다. 범민련 남측분부는 기존의 추진본부의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이미 베를린 실무회담에 참여한 3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구속이 예정된 가운데 노정권은 범민련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 탄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결성 당시의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른데 추진본부 참여 주체가 얼마나 범민련으로 결합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현시점에서 특히 92~93년의 권력 교체기를 앞둔 노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3차회담의 합의사항에 의하면 91년 매시마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사업

을 위한 계획을 초안 위원회에 위임했다. 3. 범민련 결성과 앞으로의 통일운동 베를린 회담으로 결성된 범민련은 예정대로라면 91년 1월 중으로 남측본부만 만들어지게 된다. 범민련 남측분부는 기존의 추진본부의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이미 베를린 실무회담에 참여한 3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구속이 예정된 가운데 노정권은 범민련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 탄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결성 당시의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른데 추진본부 참여 주체가 얼마나 범민련으로 결합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현시점에서 특히 92~93년의 권력 교체기를 앞둔 노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3차회담의 합의사항에 의하면 91년 매시마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사업

김형민 (전민련 편집부장)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부담과 한미 군사관계 변화

지난 14일~16일에 개최된 제22차 한미연대안보회의는 기존의 양국군사관계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군의 지위문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안보협력관계의 재확인,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내에서의 한국군 권한과 책임의 증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최근의 한소수교, 남북관계의 진전, 조일관계의 개선 등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자체적 대북역제력 보유, 한국군의 역할 증대, 주한미군 유지비 등 막대한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해 왔다. 즉, 기존까지는 대북역제력 기능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중추적기능, 한국군이 보조방어 기능을 맡았으나 이제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대북역제력 기능을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보조기능만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군역제개편, 차세대전투기 생산계획과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전시주류국지원협정, 주한미군지원비의 증가 등이 모두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이는 변화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누수현상과 전투적용력 저하를 막기 위한 일관된 노력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군의 역할 증대가 자주 평화정착이란 생각은 한상이 아니다.

돈은 때맞기고 군사력은 독차지

형식적 주한미군 감축...해·공군은 계속 증강 북한 핵개발 억제, T·S훈련지속에 일방적 합의

고 한미 양국은 상호 군사적 우호 관계가 변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절충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에 합의하고 연간 분담비 26억 달러(89년 기준)에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OIP), 전쟁예비비율자 저장 관리 등 주한미군을 위한 직접 지원비로 1억5천만 달러를 추가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양국은 지금까지 미군정장이 맡아왔던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주한미군 감축 1단계인 90~92년 중 한미군사정상으로 교체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해온 연합사내 지상군구정전사령관도 92년말에 한국군 대장으로 보임키로 하였다. 이밖에 북한측의 핵개발 억제를 위한 공동노력,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의 조속한 시일내의 체결, 톱스미트 군사연습의 지속 등에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진화기 속에서 두나라의 지속적인 안보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틀 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그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증대 조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증대문제는 미국이 추진해 온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미국의 이러한 역할분담 구성은 우선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 해·공군력의 비중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지상군의 비중이 감소된다는 '해상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 및 미군기지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 작업 속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역할분담 구성은 미국 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자체역제력 보유를 요구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구도하에서 이제 한국이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자체적 대북역제력 보유, 한국군의 역할 증대, 주한미군 유지비 등 막대한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해 왔다. 즉, 기존까지는 대북역제력 기능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중추적기능, 한국군이 보조방어 기능을 맡았으나 이제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대북역제력 기능을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보조기능만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군역제개편, 차세대전투기 생산계획과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전시주류국지원협정, 주한미군지원비의 증가 등이 모두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이는 변화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에 대한 직접·간접지원비의 증가 외에도 전시주류국지원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시 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파견되는 미군에 대해 군수, 병참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평시에도 이를 위한 물자비축과 관리를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분담금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것까지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위수석대표와 연합사내 지상군구정전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키로 한 한미연대안보사자주권을 일깨워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SOFA개정문제는 지난 88년 이래 재만관련, 민세관련, 노부관련 등 14개 항목에 걸쳐 협상 진행되어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병 구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감축

단계를 끝나는 92년 말의 전력상황을 재평가한 후에야 전면적으로 추진키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그 해결을 유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2단계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한국군의 역할증대 문제가 곧바로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군의 역할증대는 주한미군기능의 강화와 미국 내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한미간 군사적 역할분담의 구체적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담의 증대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역할의 조정에 따른 한국군의 위상 변화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군사력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체계적인 확대조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재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원)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가진 Level별 학급편성
- 동양 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
- 9월결합 행사과외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1-4 메시지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 6821-2

시사영어학원

개강 12월 3일

영어 일러리아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영·종로2가 734-2442

정보화사회의 기수 주인공의 동반자

서울컴퓨터학원

22年의信賴와權威 원장 민경현

개강: 매일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 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 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 00~15: 30, 19: 00~21: 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 00~18: 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키증권 뒤)

김퓨터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개강: 매일 첫째 주 월요일

21年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 마이컴 (BASIC, MS/DOS) 과정
- UNIX, AUTO CAD 과정
- COMPUTER GRAPHIC 과정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컴퓨터 총론, FORTRAN-1, COBOL-1, FORTRAN-2, COBOL-2, PASCAL, ASSEMBLY, BASIC, MS-DOS, DATA BASE, WORD PROCESSOR, LOTUS 1 2 3, SYMPHONY, SYSTEM 분석 및 설계, C-LANGUAGE, AUTO CAD-1 2, 자료구조, 통계학

서 초 2, 3 학생 교대형 위촉형 견본	521-1761-5	영동포 위촉형 견본	631-1921-5
종로 단상사원 위촉형 (중앙빌딩)	766-1811-5	본원 이대대우 전철역역 (중앙빌딩)	313-1711-5

부 산: 부산역앞 (중앙전선빌딩) 466-1611-5

김퓨터 교육의 영문

중앙전산학원

軍·행정·병·모집·차트

유급·참모·총장·인·총·처

관인·인상·서예·차트·한인

732-5346
735-3771

교양문화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건강한 학생회를 만듭니다

—조동천군의 '문예실천가에게 드리는 제언' 비판

당파성과 민중연대성은 문예운동의 기초

본지 58-60호에 2회에 걸쳐 게재했던 조동천군의 글에 대한 비판이 이층현군에 의해 제기되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상은정들이 독자여러분의 촉탁은 이해와 바른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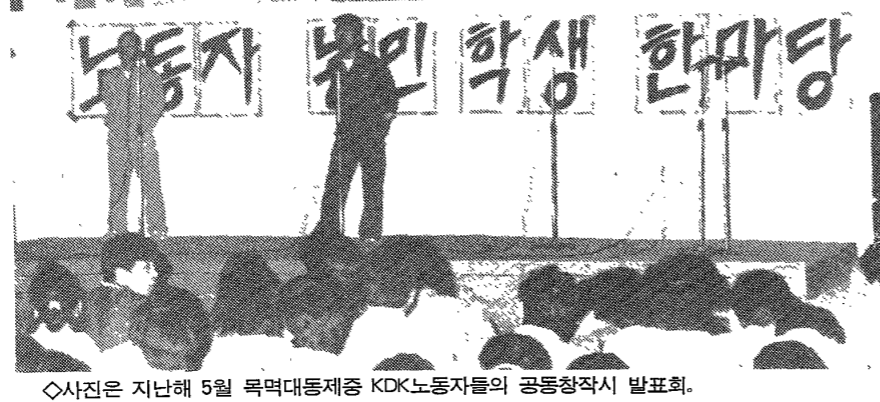
87, 88년 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은 자생적 수준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으로의 질적전환의 과정을 밟고있다. 여기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으로서의 의식화와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적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조직이다. 이런 움직임은 벌써 시작되었다. 변혁운동으로서의 무기인 문화예술은 바로 이런 관점과 통일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동천군은 이런 운동과 분리된 문예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작품으로" 문예운동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시'가 있다. 우리의 문예운동은 변혁운동의 과학적 사고와 통일적인 관점, 변혁운동의 이해와 요구를 동시에 담아내는 문예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동양의 문예운동 또한 원칙적인 논의가 문예실천가들에게 공공연히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그것을 당파성과 민중연대성으로 문예운동의 목적지향성과 이념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의식과 문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노동·민중민주주의와 청년학생의 문예는 어떤 의미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이 논의는 끊임없는 운동속에서 문예의 방향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방향성을 찾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

민중운동의 해방이든 해방의 주체세력은 민중이며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에 틀림없다. 변혁운동과 문예운동의 통일관계의 하나가 바로 당파성이다. 현 문예운동의 당파성의 기초는 민중과 노동자계급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당파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민중연대성이다. 지금의 계급사회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있다면 그들은 한 줄도 안되는 파소권력자들뿐. 문예예술은 원래 민중에게 그 몫이 주어졌었다. 계급분화와 더불어 문학예술과 민중은 분리되었다. 문예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할 계급이 지배계급으로 한정되었을 뿐이 아니라 문예의 이념도 사회전체 성원의 이해가 아닌 특정 계급의 이해만을 대변하게 되었다. 민중연대성은 이 같은 토양에서도 문예에 거대한 한 쌍으로 자리잡았다. 문예의 민중연대성은 과학적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조응하는 한 계급의 이해가 계 계급과 계층의 민중의 이해와 일치하고 그 계



○사진은 지난해 5월 목백대동계중 KOK노동자들의 공동창치식 발표회.

문예운동의 관념성, 과학적 사상으로 극복돼 동양의 문예·현장문학에 슬퍼와의 결합해야

동양의, 청년학생의 문예운동은 이같은 당파성과 민중연대성의 기초에서 문예운동으로서의 올바른 방향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조동천군은 아무래도 문학예술을 정치의식과 조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정치의식은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각가지 인과관계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문예는 부르조아권력에서 정치적으로 운송되었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보장은 문예창조자에서 문예실천가의 내적자유를 확대시키고 창조성을 증대시킨다. 당파성으로 무장된 정치의식은 인간의 삶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과학적 가치관, 문예실천가의 내적자유와 창조성,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당파성과 자유를 분리시키고 무당파성, 절대적 자유를 문예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부르조아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귀결되는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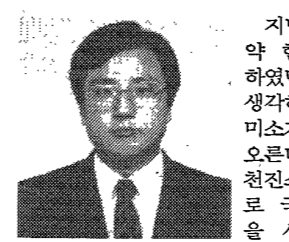
사회적 목적설정과 과학, 혁명적 실천과 문예실천가간의 공공연하고 심오하며 신념으로 가득찬 미적표현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동양의 청년학생의 역량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동시에 과대평가도 하지 않는다. 청년학생의 문예운동은 이중적 파장을 안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계급적 본질, 부르조아적 속성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념의 제시와 현실의 합일점을 찾는 작업일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상보적이며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조동천군은 이 점을 잊고 있다. 문예이론의 학습과 실천은 이것의 과학적 사상이 올바르게 결합되는 것에서 관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 사상의 학습과 변혁운동으로서의 실천이 통일적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예의 역량은 존재가 아닌 힘에 의해서 극대화되는 것이다. "동양의 문예실천가들이 이제까지 선진선봉에 주력해왔다" "꽃병 던지는 일에만 몰두

했다"고 투덜거리는 모습은 오히려, 아직도 동양의 일부 문예운동정신이 패배성의 불출로 변혁운동, 문예운동을 담당할 수 없는 실정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삶의 주위에는 어떤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가? 매년 양심수들로 감옥을 차고도 넘치며 농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기도하는 UR과 싸우고, 절기에 맞선 도시민들의 투쟁은 각목과 최루탄에 찢겨나가고, 노동악법과 생존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은 구사대, 백골탄에 너무나 충실해져가는 속에서, 문예는 어떤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인가?

동양의 문예운동이 거둔바를 주장하는 것은 조동천군과 일치한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양의 문예운동은 이제 현장문학예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문학의 진실성과 힘은 현장의 민중, 노동자들의 삶만큼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의 진실과 무한한 힘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청년학생이 시도하는 다양한 현실주의 미학을 그들의 영감으로 태워주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문화예술을 창조해야 하고 향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북경과 북경인

金榮哲 (인문대교수·중국현대문학)



지난 여름방학 약 한달간 체류하였던 북경을 생각하면 혼란한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자라리 천천스러울 정도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Q씨, 정치적 격변기에 소녀시절을 보내면서 가슴속에 강인하면서도 뜨거운 정열을 간직하고 있는 G여사, 목마 아름다운 청년의 일로 고민하는 제기 발달한 L양, 정치적 이상을 고집하며 주위의 모범을 보이는 S여사 등의 모습은 제각기 자신들의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혼란하고 순박한 인간미를 보여주었다.

북경 토박이인 그들이 보여준 혼란한 인간미는 오랫동안 중국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북경이 양육한 심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경 문화의 진수를 알려면 아무래도 북경의 문화 풍습과 하층민들의 모습을 주로 작품으로 형상화한 "북경의 과거" "노숙의 고"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북경을 났으니 어머니와 같은 도시로 비유하였다. 호수가 들위에 앉아 호수 속에 노니는 울쟁이나 갈대 잎위의 청개구리만 바라보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자극적인 커피나 맥주보다는 온화한 향기를 담은 자스민차가 어울리는 곳, 아침 공연에는 온 몸의 힘을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소용돌이치는 靜(靜)의 권법 태극권의 울음이 펼쳐지는 곳, 무엇을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瀟灑(蕭灑)의 도시로 북경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외국에서 북경을 생각할 때 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혼자 미소짓거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게 되는 자식의

생활속의 민중이해

金甲成 (한외과 대학 조교수·동국 대학병원 침구과과장) 대학입시의 시간이 촉박해 오면서 주위로 부터 수험생의 건강관리와 내가 소속해 있는 학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실 수험생의 건강관리는 우리같은 사람보다는 수험생들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세상 어느 어머니나도 입시를 눈앞에 둔 자기 자녀에게 적어도 건강유지라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홀히 할 것인가. 고3 진학부터는 집안의 모든 식구가 입시에 대한 총력전을 꾀하는 요즘과 같은 입시지옥의 세상에서 말이다. 그래도 걱정되어 들어오는 학부모들에게 "평상시 하더라도 어떤 병일까? 다음이 대답을 해주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고는 곧이 보정도와 체질적 여건 그리고 환경적 여건에 따라 발병의

입시낙방해도 마음은 편히 가져야 심리적 압박감엔 된장등이 좋아

한 사람과 또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시를 치르고 난후 그 결과가 안좋을때, 정말 그때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부모는 부

시의와 증상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대개 이러한 계층의 환자들이란 실제로 성공의 어머니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을때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꾸러워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되며 그러한 심리적 부담은 분노로 변하여 간장(肝臟)의 기능을 상하게 하며 수지와 비만감은 폐장(肺臟)을 상하게 하여 기(氣)의 흐름을 흐트러 놓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기(氣)를 고갈시켜서 수극화(水剋火)의 역제가 일어나 유리지 못해 허화(虛火)가 위로 치솟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며 어지러움과 불안 수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내내 그나마 하는 억울한 생각을 일단 증상은 해소시킬지라도 일단 정신적인 해소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므로 일상 섭취하는 음식 중 된장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도움이 될수있을 것이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자동차산업, 해운업, 항공산업, 중공업, 전자산업, 건설업

世界의 自由와 平和, 繁榮—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일사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병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태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시추용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문순기 약천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심해의 천연가스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現代는 이제 시베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보도논평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건강한 학생회를 만듭니다

굳건한 총학건설 최대 과제

동국사랑-동국중흥 토대 마련해야 선거서 나타난 분열 극복 시급

제23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올해 총학에 산감사부분이 문제가 되어 본지가 일방적으로 수거되고 선거가 한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 끝에 기호2번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마무리 됐다.

오늘(28일) 오전 0시부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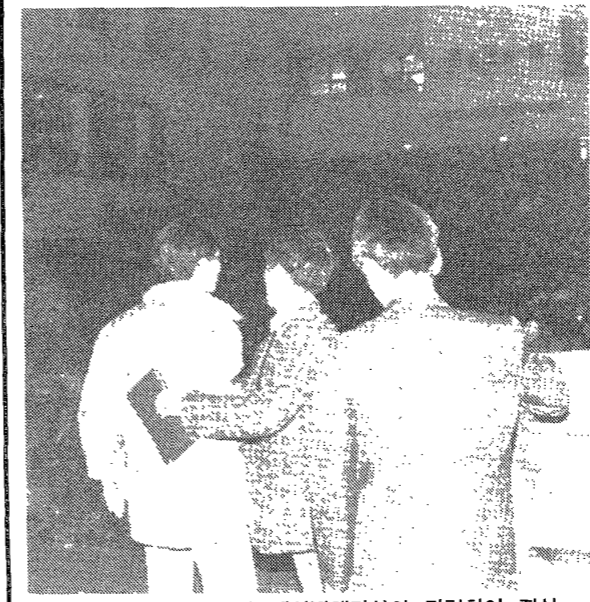
한편(2층 교수식당)에서 진행된 개표는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1지역(사회대·경상대·법대·농대) 개표결과, 기호2번이 4백33표 차이로 리드를 하며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했다. 모든 개표는 오전4시경 완료되었는데 지난 3월 제22대 총학

선거결과와 비교해 불매 투표율은 지난 3월 선거의 73.55%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58%를 기록했지만 지지도는 58.2%에서 61.5%로 선거사상 최고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선거에 투표자가 1천3백69표가 났다는 것은 그때보다 1천8백여명의 투표인수가 줄은 것을 감안할때 똑같은 비율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2천표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총학선거이래 가장 큰 표차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에서도 보여지듯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실망, 좌절감, 피해의식을 어떻게 흡수하여 23대 단결총학을 건설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총학건설에 있어서도 당락의 여부를 떠나 양후보 모두는 선거기간중 내세웠던 학생회건설과 변혁운동에 올바르게 복귀하기 위한 고인의 산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중 정·부회장에서 추진되었던 '민주적 학생회'와 '자주적 학생회' 그리고 '민중당 건설' 통한 노태우정권 완전 타도론과 '내각제개헌' 지지 위한 민주대연합론은 각후보자의 단결 학생회 건설에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총학 예산집행감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해명없이 무의미하게 끝나 버렸다. (글·사진·김영란 기자)

윤남진·김인영 추가기소 30일 3차공판서 구형 내려질듯

'반미구국전선'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남진(경행4)군과 김인영(영문4)양의 2차심리공판이 지난 23일 오전10시 서초동대법원(423호)에서 있었다.

이날 박광빈담당검사는 윤군에 대해서 지난 88년 전두환이순자구속처벌을 위한 서총원차원의 연회동 기부투쟁에서 사제폭탄 소지혐의로 구속된 후 특별사면된 점을 지적, 추가기소했다.

또한 김양에 대해서도 지난 89년 경찰의 학내진입시 불구속입건된 점을 지적, 추가기소했다.

이러한 추가기소는 '반미구국전선'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조작성이 폭로됨에 따라 재판부의 공여지책으로 취해진 강경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3차공판은 오는 30일 오전10시 서초동대법원(423호)에서 열린다.

동국관식당 1시간 연장

동국관 식당이 지난 19일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야간강좌 차기 정·부학생회장(정·송진태·야간무역3, 부·홍현기·야간회계2)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지난22일 입학축하 논의를 위한 총학 학생식당 7시, 교수식당 8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학생식당은 그대로 7시까지

교수식당은 9시까지 연장한 것이다.

한편, 야간강좌 총학생회와 신임 학생회장은 관계파 및 내부 교직원과의 논의하여 지난 19일 각 야간강좌 각의실마다 석유난로를 설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동국관에서 미술학과 실습강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교육 환경개선을 시도한바 있다.

자가용 통학자제 촉구

학생처 분석 인식전환 시급

학생자가용통학자제를 당부해 오던 학생처는 지난 19일 학생자가용 통학자제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내고, 제차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되어 온 자가용통학자제 홍보 활동 결과 외부차량통행은 줄어든 반면 학생자가용 통행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제까지 집계된 자가용 통행자가 2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시 2명 최종합격 박성태·이계문 동문

제34회 행정고시에 이계문(산청84출)동문이 재정직에 박성태(국문4)군이 일반행정직에 최종합격했다.

총무처는 지난20일 발표한 최종합격자 1백73명중 본교는 2명이었다.

총학생회장 정우식군

오늘(28일) 제23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정우식(철학3)군을 만나 사업계획 구상을 들어 보았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소감은=평정히 기쁩니다. 제22대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학우여러분과 같이 더욱 열심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제 잠을 못 주무셨을 어머니께 멋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은=기본적으로 학생회가 학우 대중에게로 뿌리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우들의 다각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학회, 학년별학생회 건설을 통한 자주적 소모임 건설로 수월해 나가겠습니다.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기본방향은=올해 학자투의 상층조직화 사업을 비판하고 '동학사랑'이라는 애교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일상적인 작은 것부터 승리해나가는 동국자공심부원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고 일상적인 사업이 부재했던 점을 극복하기위해 소모임 단위 중심의 시사토론회, 정치토론회를 일상적으로 벌임으로써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는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 세력 총연합회 이력이 내렸습니다. ▲신임총학생회장으로서 사업에 임하는 결의는=건설된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솔직하고 학우들이 믿고 따르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학우들의 사랑과 믿음을 무척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학우들을 사랑하고 믿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4시에 결과가 나온 바로 직후에 가진 인터뷰 속에서 아직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임 총학생회장의 결연한 모습은 내년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대해 확신을 갖게끔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銀)

감사특위장 심철신군

▲이번 감사중 예산집행에 관한 학내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감사사를 담당했던 감사특위장으로서의 느낌은=신문사와 총학이 서로에 대한 다소 이해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의 기획의도를 총학이 이해했고, 신문사 또한 감사내용중 한면만 부각시켰다. ▲감사를 진행할 당시 총학의 예산 집행 형태와 문제점은 어떠한가=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부장이 각단위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인출해준 다음 그곳에서 정산을 한 것을 총무부장이 총괄하는 형태였다. 여기서 총무부장이 예산집행행반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집행에 관해 본지 지난호(1063호)가 왜곡 편파보도라는 것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신문사는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썼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로부터 재갈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특위의 이에 대한 입장은=계속되는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감정적인 막연한 불신감을 증식시키기위해 철저한 재갈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구입비등 대폭지원 필요

중앙도서관 예산부족으로 전공서적 구입 어려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차기 도서구입비가 크게 증액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교부발표 대학 도서관 설치 기준령 제12조3항에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이상 추가' 4항에 '과과별 10종(자연계 학과는 15종)이상의 전문서적 정기 간행물 구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교 중앙도서관은 1%인 2억1천여만원의

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대학 도서관 설치기준령의 근거가 되는 지난 83년에 제정된 문교부 예산지침이 그간 7년간 물가, 책값인상등을 전혀 고려

치 않은 무성의한 정책과 매년 그 최저수준만 유지한다는 학교측의 단일인 발상이 장기적 인 안목에서 대학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전 피해 늘어나 실험실 관리에 차질 초래

지난 17일 오후5시경부터 19일 오후9시40분까지 계속된 정전으로 실험과-화공과 등에서 배양하던 미생물이 죽거나 균의 능력이 떨어지는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본교 변압기 3대가 최근 한파로 인한 막대한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그중 1개의 변압기가 고장을 일으켜 전 공관과 화공관, 금강관에 3일간 전력공급이 중단된 일정한 온도유지자 요구되는 미생물을 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났다.

학내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발표공학실험실에서는 동결건

실하다 심해(?)

○...지난21일 본지 1063호 7면 기사를 문제삼아 배포된 신문을 강제수거하는 등 총학이 과민반응을 보이며 총학선거 투표가 중단됐는데,

사연인즉, 총학예산 감사부분을 다른 본지들 총학에서 일방적으로 수거하고 심지어 아직 일찍 종료된 일반 학우들이 보던 것도 빼앗아 가는등 과민반응을 보이며 선거 보이듯 얘기까지 등장, 문제는 심각했었다.

만명 돌파!

동학에 세균전 벌어져

○...균의 대거학살에 본의아니게 학사행정이 총동원되어 전격적 작전수행이 진행됐다.

며칠전 아무런 예고없이 목욕탕이 정전되는 바람에 동아는 압축에서 농성파-식공파에서 배양된 미생물이 흘러 지나

언론사-학생회 '대중과는 떨어질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

이에 본 회전무대주, "이번 사태가 진실도인지 정론개발인지는 1만학우에게 검증받고 신뢰받는 대중조직인 새로운 총학을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추락하는 것은 민자가 아니다

○...연기된 정기국회의 개

건전지를 유상에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한 학우 일침.

사회오염 측정기기 발명(?)

○...환경오염도를 정수로 표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총정의 PPM대신 0~1백점제로 비퍼 0~20은 양호, 20~40은 보통, 40~60은 유해, 60~80은 매우 유해, 80~1백은 위험한 5단계로 구분하여, 오염물질을 따라 단위-기준치가 달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개선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측정기에 관한 이러한 제도 시행에 박수를 보내며 본 회전무대 담당하고 싶은 말은 "정확한 사회오염도 측정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 민중들이 편한 해 주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내 젊음의 꿈은 모스크바의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도시, 모스크바—
예수도 혁명도 모두 과거의 한부분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남치던 위대한 혼은 작은 생활속에서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스크바는 꿈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젊음의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의 첫번째 한국인 학생인 박상준(20)씨는
모스크바에서선 서울에서선 젊음의 꿈 거기가 비로되는 가능성은
같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가능성은 변화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물이 계속 끓다가 어느순간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열정과 꿈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대로 러시아 혁명도 그런 종류의 변화인지도모른다.

"모스크바도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꿈을 키우는 낯선 한 한국청년처럼요."
모스크바 대학이 서있는 레닌스키 언덕에는 간간히 내리는
진눈깨비와 함께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북구의 겨울은 유난히 길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제 젊음의 가능성과 노력, 그리고 꿈도 멈추지 않을거구요."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과
1학년 박상준

인재와 첨단기술의

● 제작에 협조해주신 KOTRA와 김포세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논평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건강한 학생회를 만듭니다

굳건한 총학건설 최대 과제

동국사랑-동국중흥 토대 마련해야 선거서 나타난 분열 극복 시급

제23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올해 총학에 산감사부분이 문제가 되어 본지가 일방적으로 수거되고 선거가 한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 끝에 기호2번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마무리 됐다.

오늘(28일) 오전 0시부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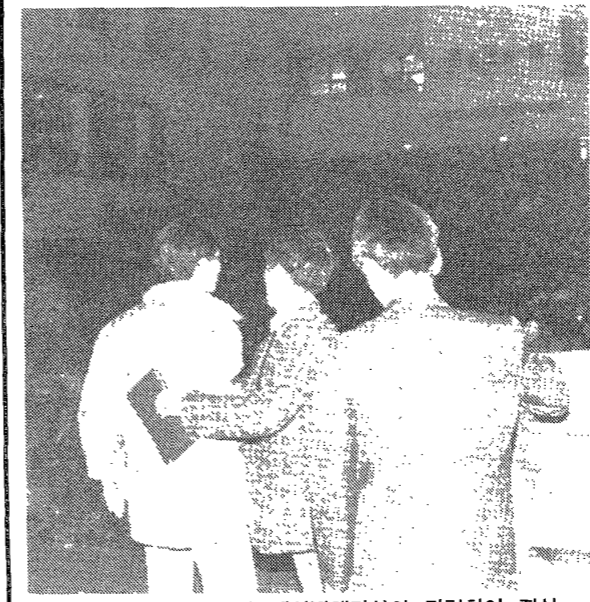
한편(2층 교수식당)에서 진행된 개표는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1지역(사회대·경상대·법대·농대) 개표결과, 기호2번이 4백33표 차이로 리드를 하며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했다. 모든 개표는 오전4시경 완료되었는데 지난 3월 제22대 총학

선거결과와 비교해 불매 투표율은 지난 3월 선거의 73.55%보다 훨씬 뒤처지는 58%를 기록했지만 지지도는 58.2%에서 61.5%로 선거사상 최고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선거에 투표자가 1천3백69표가 났다는 것은 그때보다 1천8백여명의 투표인수가 줄은 것을 감안할때 똑같은 비율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2천표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총학선거이래 가장 큰 표차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에서도 보여지듯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실망, 좌절감, 피해의식을 어떻게 흡수하여 23대 단결총학을 건설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총학건설에 있어서도 당락의 여부를 떠나 양후보 모두는 선거기간중 내세웠던 학생회건설과 변혁운동에 올바르게 복귀하기 위한 고인의 산골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중 정·부회장에서 출점이 되었던 '민주적 학생회'와 '자주적 학생회' 그리고 '민중당 건설 통한 노태우정권 완전 타도'와 '나라개헌' 지지 외적인 민주대연합은 각후보자의 단결 학생회 건설에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총학 예산집행감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해명없이 무의미하게 끝나 버렸다. (글·사진·김영란 기자)

윤남진·김인영 추가기소 30일 3차공판서 구형 내려질듯

'반미구국전선'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남진(경행4)군과 김인영(영문4)양의 2차심리공판이 지난 23일 오전10시 서초동대법원(423호)에서 있었다.

이날 박광빈담당검사는 윤군에 대해서 지난 88년 전두환이순자구속처벌을 위한 서총련차원의 연회동 기부투쟁에서 사제폭탄 소지혐의로 구속된 후 특별사면된 점을 지적, 추가기소했다.

또한 김양에 대해서도 지난 89년 경찰의 학내진입시 불구속입건된 점을 지적, 추가기소했다.

이러한 추가기소는 '반미구국전선'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조작성이 폭로됨에 따라 재판부의 공여지책으로 취해진 강경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3차공판은 오는 30일 오전10시 서초동대법원(423호)에서 열린다.

동국관식당 1시간 연장 차기 야간강좌 학생회 공약일환

동국관 식당이 지난 19일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운영되고 있다.

이는 야간강좌 차기 정·부학생회장(정·송진태·야간무역3, 부·홍현기·야간회계2)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일환의 일환으로 지난12일 입학축하 논의를 한 결과 총선 학생회장 7시, 교수식당 8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학생회장은 그대로 7시까지

자가용 통학자제 촉구 학생처 분석 인식전환 시급

학생자가용통고 자제를 당부해 오던 학생처는 지난 19일 학생자가용 통학자제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내고, 제차 자제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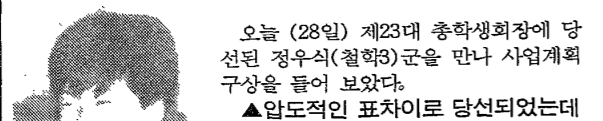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되어 온 자가용통고자제 홍보 활동 결과 외부차량통고는 줄어든 반면 학생자가용 통고는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제까지 집계된 자가용 통고자가 2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시 2명 최종합격 박성태·이계문 동문 제34회 행정고시에 이계문(산청84출)동문이 재정직에 박성태(국문4)군이 일반행정직에 최종합격했다.

총무처서 지난20일 발표한 최종합격자 1백73명중 본교는 2명이었다.

총학생회장 정우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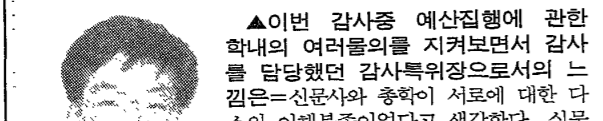


오늘(28일) 제23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정우식(철학3)군을 만나 사업계획 구상을 들어 보았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소감은=평정히 기쁩니다. 제22대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학우여러분과 같이 더욱 열심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제 잠을 못 주무셨을 어머님께 땀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후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은=기본적으로 학생회가 학우 대중에게로 뿌리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우들의 다각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학회, 학년별학생회 건설을 통한 자주적 소모임 건설로 수월해 나가겠습니다.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기본방향은=올해 학자투의 상층조직화 사업을 비판하고 '동학사랑'이라는 애교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일상적인 작은 것부터 승리해나가는 동국자공심부합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고 일상적인 사업이 부재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모임 단위 중심의 시사토론회, 정치토론회를 일상적으로 벌임으로써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는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 세력 총단결로 이렇기 내걸었습니다. ▲신입총학생회장으로 사업에 임하는 결의는=건설된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솔직하고 학우들이 믿고 따르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학우들의 사랑과 믿음을 무척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학우들을 사랑하고 믿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4시에 결과가 나온 바로 직후에 가진 인터뷰 속에서 아직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입 총학생회장의 결연한 모습은 내년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대해 확신을 갖게끔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銀)

감사특위장 심철신군



▲이번 감사중 예산집행에 관한 학내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감사사를 담당했던 감사특위장으로서의 느낌은=신문사와 총학이 서로에 대한 다소 이해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의 기획의도를 총학이 이해했고, 신문사 또한 감사내용중 한면만 부각시켰다. ▲감사를 진행할 당시 총학의 예산 집행 형태와 문제점은 어떠한가=예산은 총학에서 각단위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인출해준 다음 그곳에서 정산을 한 것을 총무부장이 총괄하는 형태였다. 여기서 총무부장이 예산집행현황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집행에 관해 본지 지난호(1063호)가 왜곡 편파보도라는 것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신문사는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썼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로부터 재갈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특위의 이에 대한 입장은=계속되는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감정적인 막연한 불신감을 증식시키기위해 철저한 재갈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구입비등 대폭지원 필요 중앙도서관 예산부족으로 전공서적 구입 어려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차기 도서구입비가 크게 증액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교부발표 대학 도서관 설치 기준령 제12조3항에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이상 추가' 4항에 '과과별 10종(자연계 학과는 15종)이상의 전문서적 정기 간행물 구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교 중앙도서관은 1%인 2억1천여만원의

단기 '자료집속의 논쟁'으로 그쳐버린 선거를 통한 대중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초 기대했던 '동국사랑, 동국중흥을 위한 선거축전'은 충분히 그 의미를 찾지 못했으나 이를 다지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근은 기자)

정전 피해 늘어나 실험실 관리에 차질 초래

지난 17일 오후5시부터 19일 오후9시40분까지 계속된 정전으로 실험과 화공과 등에서 대량화된 미생물이 죽거나 균의 능력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본교 변압기 3대가 최근 한파로 인한 막대한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그중 1개의 변압기가 고장을 일으켜 전 실험관과 화공관, 금강관에 3일간 전력공급이 중단된 일정한 온도유지자 요구되는 미생물을 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났다.

학내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발표공화실험실에서는 동결건

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대학 도서관 설치기준령의 근거가 되는 지난 83년에 제정된 문교부 예산지침이 그간 7년간 물가, 책값인상등을 전혀 고려

실하다 심해(?)

○...지난21일 본지 1063호 7면 기사를 문제삼아 배포된 신문은 강제수거하는 등 총학이 과민반응을 보이며 총학선거 투표가 중단됐는데,

사연인즉, 총학예산 감사부분을 다른 본지들 총학에서 일방적으로 수거하고 심지어 아질 일적 등교한 일반 학우들이 보던 것도 빼앗아 가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며 선거 보이듯 얘기까지 등장, 문제는 심각했었다.

만명 돌파!

동학에 세균전 벌어져

○...균의 대거학살에 본의아니게 학사행정이 총동원되어 전격적 작전수행이 진행됐고,

며칠전 아무런 예고없이 목욕탕이 정전되는 바람에 동아는 압축에서 농성파·식공파에서 배양된 미생물이 흘러 지나

언론사-학생회 '대중과는 떨어질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

이에 본 회전무대주, "이번 사태가 진실도인지 정론개발인지는 1만학우에게 검증받고 신뢰받는 대중조직인 새로운 총학을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추락하는 것은 민자가 아니다

○...언기된 정기국회의 개

전전지를 육상에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한 학우 일침.

사회오염 측정기기 발명(?)

○...환경오염도를 정수로 표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총정의 PPM대신 0~1백점제로 비퍼 0~20은 양호, 20~40은 보통, 40~60은 유해, 60~80은 매우 유해, 80~1백은 위험한 5단계로 구분하여, 오염물질을 따라 단위-기준치가 달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오염 측정기에 관한 이러한 제도 시행에 박수를 보내며 본 회전무대 담당하고 싶은 말은 "정확한 사회오염도 측정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민중들이 편한 해 결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내 젊음의 꿈은 모스크바의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도시, 모스크바—
예술도 혁명도 모두 과거의 한부분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남치던 위대한 혼은 작은 생활속에서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스크바의 꿈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걸어도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젊음의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의 첫번째 한국인 학생인 박상준(20)씨는
모스크바에서선 서울에서선 젊음의 꿈 거기가 비로되는 가능성은
같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가능성은 변화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물이 계속 끓다가 어느순간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열정과 꿈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대로 러시아 혁명도 그런 종류의 변화인지도 모른다.

"모스크바도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꿈을 키우는 낯선 한 한국청년처럼요."
모스크바 대학이 서있는 레닌스키 언덕에는 간간히 내리는
진눈깨비와 함께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북구의 겨울은 유난히 길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제 젊음의 가능성과 노력, 그리고 꿈도 멈추지 않을거구요."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과
1학년 박상준

인재와 첨단기술의

● 제작에 협조해주신 KOTRA와 김태환 관제사분께 감사드립니다.

